

**NATURE
TEACHES
BEASTS
TO KNOW
THEIR
FRIENDS**

자연은 짐승에게 누가 친구인지를 알게 한다

2012. 12. 19 - 2013. 1. 1



Martyn Thompson



Paige Stewart



Jessica Black

NATURE TEACHES BEASTS

Loren Rudisuela



Cora Kobischka

Eric Scot Nelson



TO KNOW THEIR FRIENDS



Eric Scot Nelson (America)

obsolete_idiom@hotmail.com

This series was taken at a local dog shelter and displays the fragil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ns best friend. Animals that used to be pets and were abandoned by their owners when they became an inconvenience. The purpose of this series was to photograph the dogs in a way that evoked emotion out of the viewer.

이 사진 시리즈는 경기도 일산지역의 유기견보호소에서 촬영했으며 인간과 인간의 가장 가까운 동물친구인 개와의 끊어질 듯 약한 관계를 묘사해 보았습니다. 한 때 애완용으로 길러졌던 동물들의 주인들이 돌보기 불편해지면 이들을 버립니다. 이 사진 시리즈는 버려진 개들의 사진을 보는 이로 하여금 일말의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저의 첫 전시작품이 될 것입니다.



Paige Stewart (Canada)

emailpaige@gmail.com

This series was taken at a local dog shelter and displays the fragil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ns best friend. Animals that used to be pets and were abandoned by their owners when they became an inconvenience. The purpose of this series was to photograph the dogs in a way that evoked emotion out of the viewer.

이 사진 시리즈는 경기도 일산지역의 유기견보호소에서 촬영했으며 인간과 인간의 가장 가까운 동물친구인 개와의 끊어질 듯 약한 관계를 묘사해 보았습니다. 한 때 애완용으로 길러졌던 동물들의 주인들이 돌보기 불편해지면 이들을 버립니다. 이 사진 시리즈는 버려진 개들의 사진을 보는 이로 하여금 일말의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저의 첫 전시작품이 될 것입니다.



Loren Rudisuela (Canada)

eyck13@hotmail.com

This series was taken at a local dog shelter and displays the fragil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ns best friend. Animals that used to be pets and were abandoned by their owners when they became an inconvenience. The purpose of this series was to photograph the dogs in a way that evoked emotion out of the viewer.

이 사진 시리즈는 경기도 일산지역의 유기견보호소에서 촬영했으며 인간과 인간의 가장 가까운 동물친구인 개와의 끊어질 듯 약한 관계를 묘사해 보았습니다. 한 때 애완용으로 길러졌던 동물들의 주인들이 돌보기 불편해지면 이들을 버립니다. 이 사진 시리즈는 버려진 개들의 사진을 보는 이로 하여금 일말의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저의 첫 전시작품이 될 것입니다.



Cora Kobischka (America)

cora.kobischka@gmail.com

This series was taken at a local dog shelter and displays the fragil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ns best friend. Animals that used to be pets and were abandoned by their owners when they became an inconvenience. The purpose of this series was to photograph the dogs in a way that evoked emotion out of the viewer.

이 사진 시리즈는 경기도 일산지역의 유기견보호소에서 촬영했으며 인간과 인간의 가장 가까운 동물친구인 개와의 끊어질 듯 약한 관계를 묘사해 보았습니다. 한 때 애완용으로 길러졌던 동물들의 주인들이 돌보기 불편해지면 이들을 버립니다. 이 사진 시리즈는 버려진 개들의 사진을 보는 이로 하여금 일말의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저의 첫 전시작품이 될 것입니다.



Jessica Black (Ireland)

Jessemblack@gmail.com

This series was taken at a local dog shelter and displays the fragil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ns best friend. Animals that used to be pets and were abandoned by their owners when they became an inconvenience. The purpose of this series was to photograph the dogs in a way that evoked emotion out of the viewer.

이 사진 시리즈는 경기도 일산지역의 유기견보호소에서 촬영했으며 인간과 인간의 가장 가까운 동물친구인 개와의 끊어질 듯 약한 관계를 묘사해 보았습니다. 한 때 애완용으로 길러졌던 동물들의 주인들이 돌보기 불편해지면 이들을 버립니다. 이 사진 시리즈는 버려진 개들의 사진을 보는 이로 하여금 일말의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저의 첫 전시작품이 될 것입니다.



Martyn Thompson (United Kingdom)

martyn@m-art-yn.com

This series was taken at a local dog shelter and displays the fragil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ns best friend. Animals that used to be pets and were abandoned by their owners when they became an inconvenience. The purpose of this series was to photograph the dogs in a way that evoked emotion out of the viewer.

이 사진 시리즈는 경기도 일산지역의 유기견보호소에서 촬영했으며 인간과 인간의 가장 가까운 동물친구인 개와의 끊어질 듯 약한 관계를 묘사해 보았습니다. 한 때 애완용으로 길러졌던 동물들의 주인들이 돌보기 불편해지면 이들을 버립니다. 이 사진 시리즈는 버려진 개들의 사진을 보는 이로 하여금 일말의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저의 첫 전시작품이 될 것입니다.



INTRODUCTION

Sicinius said, 'Nature teaches beasts to know their friends' in William Shakespeare's Coriolanus.

From microscopic organisms to gigantic whales, the Earth teems with animal life; from the deepest parts of the ocean to the tops of mountains. Some are loved and cared for in our own homes, more fight for survival in the wild, and others we beat and butcher.

The relationships that humans have with animals vary from person to person and animal to animal. Timothy Treadwell ventured into bear territory multiple times, until he was mauled to death by the animals he spent so much of his life learning about and trying to protect. George and Joy Adamson cared and nurtured lions in Kenya, protecting them from hunters and poachers, raising hope the specie will continue to exist.

Not all human-interaction is as positive as this. Dogs are beaten before being killed, and their adrenal glands are sold to consumers. Tiger carcasses are soaked in rice wine to increase virility. Rhinoceros horns are sheared off to grind into powder, allegedly to heal all kinds of ailments. Bear bile is drained from live bears for medicinal purposes. Animals are skinned for their fur.

This exhibit aims to highlight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animals, and ask the simple question - what do we mean to each other?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Coriolanus>>에서 Sicinius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짐승에게 누가 친구인지를 알게 한다.”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저 깊은 해저부터 저 높은 산맥의 정상까지, 지구는 생명체로 가득하다. 일부는 인간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지만, 대다수의 동물들은 거친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며 인간의 손에 죽기도 한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인간간 그리고 동물간의 관계를 변이시킨다. Timothy Treadwell은 여러 번에 걸쳐 곰의 서식지를 탐험했다. 그리고 곰에게 찢기어 죽기까지, 평생 곰을 연구하며 지키려는 노력으로 헌신했다. 또한 George 그리고 Joy Anderson은 멸종위기에 처한 케냐의 사자를 지키기도 했다.

모든 인간이 이들처럼 긍정적인 모습으로 동물과 관계하진 않는다. 어떤 이들은 부드러운 육질을 얻으려, 도살 직전까지 개를 몽둥이로 두들겨 썬다. 또한 사자의 몸동은 정력제로 쓰이기 위해 소주에 담긴다. 코뿔소의 뿔은 뿔아져 약재로 쓰인다. 그리고 곰은 살아있는 채, 배를 갈리어 웅담이 추출된다. 물론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옷이 되기 위해 가죽을 내어 주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번 전시는 인간과 동물의 복잡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의도했으며, 다음의 짧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인간과 동물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

Martyn Thompson (2012)

The logo for PANK (Professional Artist Network Korea) features the word "PANK" in a bold, sans-serif font. Each letter is composed of multiple overlapping, semi-transparent shapes in various colors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creating a vibrant, multi-colored effect.

Professional Artist Network Korea
www.pank.kr



International Artists Community (Korea)
www.koreaiac.com



iGallery, Insadong
www.egalleryi.co.kr